

보도시점 (온라인) 2026. 6. 29.(월) 12:00
(지 면) 2026. 6. 30.(화) 조 간

주5일제 논의부터 남북정상회담 기록물까지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 공개

- 6월 30일부터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원문 3만 1천 건 공개
-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충족 및 활용 기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이고 소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원문 3만 1천 건을 6월 30일(화)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약 10만 건의 원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에 3만 1천 건을 개방하게 되어 대통령기록포털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원문은 기존에 공개된 약 12만 건을 포함해 총 15만 건으로 늘어난다. 이번 공개 조치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역대 정부의 핵심 기록물을 직접 확인하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누리집에 공개하는 대통령기록물은 그동안 공개로 전환된 기록물 중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을 먼저 선별했다. 제11대와 제12대 전두환 대통령부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시기까지 경제·통상, 외교·안보, 남북 관계·통일, 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진 주요 정책 수립 과정과 국정운영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 경제·통상 및 외교·안보 분야의 역사적 국정운영 기록 전면 개방

먼저, 경제와 통상 분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해 근로 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 경과와 단축 방안을 담은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 사항 검토’ 등의 기록물이 포함됐다.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의 기록물 중 세계 각국과의 FTA 추진 현황을 짚어볼 수 있는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노어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등을 위한 ‘농어업분야 한미FTA 국내보완 대책’ 등이 베일을 벗는다.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기,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전달된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의 축하 서한’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 시기 이란-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 공군기의 폭격으로 우리 건설근로자가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을 담은 ‘이란 내 건설현장 피격 및 우리 근로자 사망 사고 보고’가 포함됐다. 아울러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와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한 결단을 담아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낸 ‘대통령 친서’, 이명박 전 대통령 시기 대한민국 국방 개혁의 밑그림을 엿볼 수 있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작성 방향’ 등도 원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의 변화를 담은 핵심 문서 수록

남북 관계와 통일 분야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의 방북을 민족화합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한 ‘이인모 방북허용 기본추진계획(안)’이 공개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의 기록물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들을 살펴볼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와 각 정당 대표에게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남북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도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준비 경과 등을 상세히 설명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

한 보고결과’가 포함됐다. 당시 북한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남북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제안했던 ‘대통령 서한’의 원문도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는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과 국정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 기록은 국가와 국민의 자산인 만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직접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 원문 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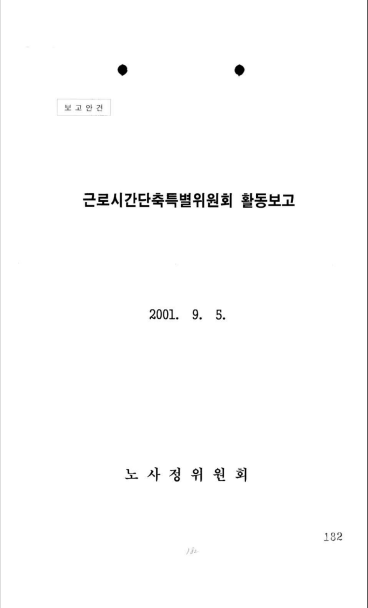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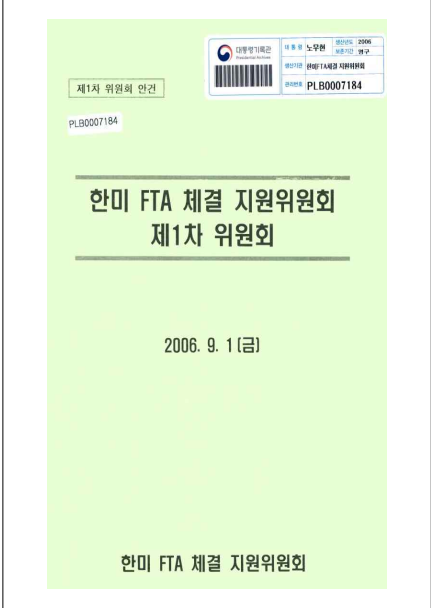
담당 부서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조상민 (044-211-2210)
		담당자	연구관	안대희 (044-211-2251)
			연구사	이철환 (044-211-2253)



참고

주요 원문공개 대통령기록물

경제 · 통상 분야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2001. 9. 5. 노 사 정 위 원 회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사항 검토 〈5. 3 고위급회담서 쟁점사항〉 ■ 노동계 제기사항 ○ 휴가임수 가산기준 : 3년달 1일 → 2년달 1일 ○ 연장근로 활동률 : 단축 4시간분 3년간 25% → 50% 현행유지 ○ 생리휴가 : 무급화 → 유급 유지 ※ 이후 처분과 협의에서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대신 임금보전을 요구 ○ 휴가사용촉진방안 : 신설 → 삭제 ■ 경영계 제기사항 ○ 시행시기 : 대기업 별개장 공포후 1년이후 시행 → 2005년 시행 ○ 법 개정사항이 단행에서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 〈 쟁점사항에 대한 우리부 입장 〉 ☐ 임금보전 문제 ○ 법률위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두고 - 합의문에 기존의 임금수준은 종전에 "저급별단 임금, 상여금 및 각종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이라고 명시하여 보완적 - 다만, 노동이 생리휴가수당 및 연원차용가수당에 대한 보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 해도 별 문제가 없음 ☐ 연차휴가 가산기준 ○ 노사정위 합의대안인 단축달수 3년달 1일 가산과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단축달수 2년달 1일 가산에 따른 연차휴가임수를 비교해 보면	 제1차 위원회 안건 PLB0007184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 2006. 9. 1(금)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I. FTA 추진 현황 정부가 협상 또는 후속협의 중인 FTA : 싱가포르, 일본 II. 싱가포르 : 동북아 허브와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 ○ 금년초부터 10여차례의 협상을 거쳐 ASEAN+3 국가 양국 정상회담시(2004.11.29) 실질적 타결 선언 - 내년 중반경 발효 목표로 2005.1월까지 협정문안 확정, 2월중 국무회의 심의, 3월중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 동의 요청 계획 ○ 다양한 무역-투자 확대방안이 포함된 FTA로서, 특히 개성공단 등 북한경제특구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부여 규정 포함. -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키로 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된 제품의 해외관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선례 마련 ○ 향후 ASEAN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III. 일본 :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FTA 추진중 ○ 2003.12월부터 6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일축의 낮은 농수산물 분야 양허계획으로 협상이 난관에 봉착 - 일축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양허계획을 갖고 협상에 임함에 따라, 당초 금년 하반기로 예정되었던 양허안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일축 농수산물분야 양허안은 무역액 기준 50%~60%, 품목수 기준으로 10% 수준 추정	농어업분야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가 대책 수립 현황 ☐ '07. 11.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직접 피해 보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08~17, 21.1.20) ☐ '11. 8.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기존 대책을 수정·보완한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마련 ○ 축산·과수·원예 시설현대화 등 핵심인프라 위주로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21.1.8.문~22.1.8.문) 등 ☐ '12. 1. 13개 여·야 합의사항을 반영한 '추가보완대책' 수립 ○ (경제 및 세계) 재경(22.1.8.문~24.1.8.문) 및 세계(24.1.8.문~25.1.8.문) · 시설현대화 사업 확대, 신규 직불제 도입 등 · 비파괴 부업 소득 범위 확대, 면세율 및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간 연장 등 ○ (제도개선) 농어업인 영농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 임차농 보호,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등을 법제화하는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 (단위 : 조원)</th> <th>영농 대책 (A)</th> <th>수출대책 (B)</th> <th>추가대책 (C)</th> <th>총합 (A+B+C)</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49.9</td> <td>51.1</td> <td>54.0</td> <td>155.0</td> </tr> <tr> <td>0계 계</td> <td>21.1</td> <td>22.1</td> <td>24.1</td> <td>67.3</td> </tr> <tr> <td>1계 계</td> <td>28.8</td> <td>29.0</td> <td>29.9</td> <td>87.7</td> </tr> </tbody> </table> ※ 농산물 저가부담 확대에 따른 지원규모 0.1조원 포함	구 분 (단위 : 조원)	영농 대책 (A)	수출대책 (B)	추가대책 (C)	총합 (A+B+C)	합 계	49.9	51.1	54.0	155.0	0계 계	21.1	22.1	24.1	67.3	1계 계	28.8	29.0	29.9	87.7
구 분 (단위 : 조원)	영농 대책 (A)	수출대책 (B)	추가대책 (C)	총합 (A+B+C)																				
합 계	49.9	51.1	54.0	155.0																				
0계 계	21.1	22.1	24.1	67.3																				
1계 계	28.8	29.0	29.9	87.7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김대중 대통령, 2001. 1A20705114241216)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논의 경과와 단축 방안을 담은 보고서이다. 국가별 근로시간 비교 자료와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 휴가제도 개편 등 주요 쟁점이 정리되어 있다.	〈근로시간단축 관련 쟁점사항 검토〉 (김대중 대통령, 2002.7.16., 1A20705143230298)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기사항에 대해 쟁점을 분석하여 정부의 입장을 검토한 기록물이다.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제1차 위원회〉 (노무현 대통령, 2006.9.1., 0B00000010001106) 한미 FTA 바로알기 추진계획, 한미FTA 1~2차 협상결과 및 3차 협상 대응방향 등의 내용이 있다.	〈FTA 추진 현황 및 전망〉 (노무현 대통령, 2004.12.7., 1010189100001377) 우리 정부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던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이다.	〈농어업분야 한미FTA 국내보완대책〉 (박근혜 대통령, 2013.3.14., 1015032100000196) 한미 FTA 발효 이후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개선 등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이다. 보완 대책수립 현황, 대책 추진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외교 · 안보 분야

LE PRESIDENT DE LA REPUBLIQUE Paris, le 6 juin 1986 Monsieur le Président, En ce jour où la France et la Corée célèbrent le centenaire de leurs relations, je forme des vœux, au nom du peuple français et au nom non propre, pour que les relations entre nos deux pays restent marquées au cours du prochain siècle par l'esprit d'amitié et de dialogue qui les a caractérisées depuis cent ans. Veuillez agréer, Monsieur le Président, l'assurance de ma très haute considération <i>de mon service personnel</i> <i>François Mitterrand</i> François MITTERRAND Son Excellence Monsieur CHUN DOO HWAN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de Corée 15	이란內 建設現場 被擊 및 我國勤勞者 死亡 事故 報告 88.7.1. 外 務 部 1	각 하, 보내주신 93.10.8 자 편지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각하께서 위임하여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본인은 지난 7월 각하께서 한국을 방문했을때 각하와 많은 우리와 친분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며, 각하의 방한을 계기로 한 비건의 포괄적인 동맹, 동반자 관계가 더욱 확고해진 것에 대해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미국과의 동맹,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미국은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켰고, 아직도 한국의 발전과 통치의 평화를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본인은 위임후 한,미 관계의 강화를 '신뢰교'의 기적으로 삼고, 우리 두나라 사이의 우의와 유대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	외교통상부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급] 일본 쓰나미 피해에 대한 긴급 인도적 지원 수신 : 주일본대사 사본 : 일본외무성, 방위안전보장국, 공보담당관, 국무총리실장(국무정책협력관), 대통령실장(청와대),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행정안전부장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별첨 : 외교통상부보통관(인도지원요청) 대 : 주일본대사관-3029(11.3.11) 1. 구분 : 지시 2. 내용 우리 정부는 위 주재국 정부가 필요로 할 경우 구조대 파견 외에도 구호물자 및 기타 전문기술 지원(예: 재난지킴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입장인바, 이 중 일본 우리 지원 의사를 귀 주재국 정부에게 적의 통보하고, 일축히 수감자 파악되는 대로 조속 보고 바랍니다. 끝.	국방개혁 기본계획 조정안 작성 방향 □ 기본개념 ○ 대통령 지침을 기초로 MB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 제시 <국방부 업무보고서(08.3.12) 대통령 지시사항> ① 실용성과 현실성을 고려, 구체적인 계획 연내 수립 ② 기존계획은 7% 경제성장률 전제로 작성, 만약 저성장시 대해 강구 ③ 발위산업 및 국가 경제발전과 연계하여 사고 ④ 최첨단무기 구입·개발안이 아닌 실용적 계획 수립 ⑤ 육·해·공 균형발전과 해·공군의 빠른 과학화 필요 ※ 실용적이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 ○ "미래전장 운용개념(How to fight)"을 먼저 정립한 후, 어떤 전력·군의 모습이 필요한 지에 대해(우리 군의 미래비전) 알기 쉽게 설명 ○ 북한의 군사위협 억제능력 우선 확보 후, 잠재적 위협 대비능력 확보 • 21세기 전략환경, 향후 북한위협 변화 등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군사력을 동원적으로 발전 ○ 미중일의 국가경제성장률 고려, 소요 최적화·우선순위 설정 □ 분야별 보완방향 ○ 군구조개혁은 실현 가능성 고려 탄력적으로 조정 • 지휘구조 : 한미 공동방위체계 구축에 주안을 두되, 특히 연합 C4I체계의 효율성 극대화 보장 • 부대구조 : 육·해·공군 균형발전 원칙 견지하, NCW 개념에 의한 합동작전 보장 위해 정보·기술 집약형으로 변혁 • 개혁 추진간 「先 전력화 후 개편」 원칙 준수로 전력 공백 방지 - 1 -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프랑소아 미테랑(Francois Mitterrand) 불란서 대통령의 친서> (전두환 대통령, 1986, A000045700004850)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수교 100주년 기념일에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보낸 축하 서한이다.	<이란 내 건설현장 피격 및 우리 근로자 사망 사고 보고> (노태우 대통령, 1988, 1A00614174614732) 이란-이라크 전쟁 중이던 1988년 7월, 이란 강간 지역의 우리 건설업체 가스정제소 공사현장이 이라크 공군기의 공습을 받아 우리 근로자가 희생된 사고를 보고한 문서이다. 사고 경위와 현지 공관·외무부의 후속 조치 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다.	<윌리엄 클린턴(William J. Clinton) 미합중국 대통령 앞 대통령 친서> (김영삼 대통령, 1993.10.18., 1A00614174635294)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답신으로 한미간의 포괄적인 동맹, 동반자관계가 더욱 확고해진 것에 대단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소말리아에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파견된 공병부대는 지속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본 쓰나미 피해 관련 긴급 인도적 지원 외교전문> (이명박 대통령, 2011., 외교통상부·주일본대사관, 1011031100001069·1011031100001070)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일, 외교당국과 주일본 대사관이 주고받은 외교전문이다. 구조대 파견과 구호물자 전문기술 지원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09년도 국방개혁 수정 보완 방향보고> (이명박 대통령, 2009, 1011032100005870) 이명박 대통령의 지침을 기초로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남북관계 · 통일 분야

 이인모 訪北許容 關聯 基本推進計劃 (案) 1993. 3. 11 統一院	남북정상회담 의제(안) 외교안보(통일) 2000. 4. 22(토) 1. 목표 및 당면 과제 <목 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 정착 <전략적 목표> ① 신뢰구축 ② 화해·협력의 계기 조성 → 전쟁위험의 감소 ③ 북한의 변화와 개방 <(당면) 중점과제> ① 경제협력 ② 평화정착 ③ 이산가족 상봉 ④ 남북 당국간 대화 정상화	정당 설명회 자료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2000. 4. 27 이회창설명 37	(07.8.8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보고결과, 안보정책비서관실)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전대통령에 대한 보고결과 1. 개요 ○ 일시 : '07.8.8(수) 09:25-09:45 (약 20분간) ○ 보고자 : 윤병세 안보정책수석 ○ 배석 : 박지원 전비서관장, 최경환 보좌관 등 2. 보고결과 ○ 안보정책수석은 보고자료에 의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준비 경과, 합의 내용, 주요 협의사항, 범정부 추진체계에 대해 보고함. ○ 김 전대통령께서는 먼저 수석이 사전 설명하러 온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함. -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협력에 전진되기를 바라며,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원함. - 참여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보며,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함. ※ 한편, 김 전대통령은 미국 등에 대한 사전 통보 여부를 묻는 → 안보수석은 금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직후 외교부장관과 안보실장이 미 행정부(국무부, 백악관)에 사전 통보했고 이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설명 ○ 이어 김 전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안부를 물으시고 수석의 설명에 대해 제차 감사를 표함. ※ 김 전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고 김 전대통령에 대한 안보수석의 사전 설명 내용 등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 /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귀하 최근 귀국 여러 지역에서 유례없는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호우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어 귀국 주민들의 고통이 하루 빨리 해소되길 바랍니다. 남측 정부와 주민들도 동포애의 정신에서 귀국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협력을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평양에서 만나 남북간의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해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게 되길 기대합니다. 2007년 8월 20일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이인모 방북허용 관련 기본추진계획(안)> (김영삼 대통령, 1993.3., 1A00614174637865)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민족화합과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주도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방북 추진방침, 세부추진계획 등의 내용이다.	<남북정상회담 주요 의제(안)> (김대중 대통령, 2000.4.22., A000007510002858)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 정착, 전략적 목표는 신뢰 구축, 화해·협력의 계기 조성, 북한의 변화와 개방 등의 내용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추진방향과 기대효과> (김대중 대통령, 2000.4.27., A000007510002969)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주요 정당 대표에 대한 설명자료로 '이회창 설명'이라는 메모가 쓰여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현황, 남북경제협력의 원칙, 남북경제협력의 의의(효과) 등의 내용이다.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결과> (노무현 대통령, 2007.8.8., 1010224100013794) 남북정상회담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환영하며,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님 명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앞 북한 수해 위로 서한> (노무현 대통령, 2007.8.20., 1010224100013734) 북한의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머지않아 남북 간의 평화와 공동번영, 화해, 통일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는 내용이다.